

법 어

무더위가 한창인 계절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축원할 때 나오는 우순풍조(雨順風調)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합니다.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야 농사가 잘되고, 그래야 사람들의 삶도 순조롭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이야 자연의 이치이지만,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만해대상은 이런 마음을 담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롭고 순조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 행동을 기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새 열매가 영글어가듯,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숨은 영웅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지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여망속에서 올해도 만해대상은 정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숨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영웅들을 찾아내 주었습니다. ‘나눔의 집’, 이세중 님, 아시라프 달리 님, 모흐센 마흐말바프 님, 윤양희 님, ‘손잡고’는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과 단체들입니다.

전쟁과 불행이 없는 인류를 위해 진실과 평화의 세상으로 한걸음씩 안내하고, 인권을 중시하며 시민과 사회를 위하겠다는 헌신은 만해스님의 삶과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사회적 국제적 약자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모두의 공감으로 이끌고,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여 후손에게 반드시 진실과 더 나은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향기로운 발심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영웅들을 새롭게 만나고 그 업적을 기리는 것은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겠다는 만해사상의 21세기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작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혼자서 그 역할을 짊어진 분도 있고, 여럿이 같이 함께 손잡고 힘을 모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마음들이 모여 인류사회와 온 세계가 평화의 길로 또 한걸음 더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해스님이 그토록 원했던 ‘님’의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불합리하고 순조롭지 않을 때, 바로 이 분들은 우리들 마음에 선량한 바람을 들게 하고 촉촉한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인성의 삶과 사회의 공정함을 이루는 우순풍조와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고 순조롭게 하는 수상자들의 마음과 실천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